기획예산처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6. 22.(월) 11:00 배포 2026. 6. 22.(월) 9:00

“재정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해법 모색”

- 박홍근 장관,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
- 역대급 세수 활용, 5대 구조적 난제 극복, 재정혁신에 관한 의견 수렴

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22일(월) 오전 10시, **학계·연구기관·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**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재정기조와 중점투자방향 등 **재정운용 방향**에 대한 **전문가**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간담회에는 **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, 권남훈 산업연구원장, 우석진 명지대 교수, 이우진 고려대 교수, 고선 중앙대 교수,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,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**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.

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, 반도체 경기의 지속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, 물가·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**재정 운용**에 있어 **불확실성**이 **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**이라고 언급하면서, 당면과제인 **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**, **5대 구조적 난제**(산업 대전환, 인구감소, 양극화, 지방소멸, 기후변화) **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**, **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**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하였다.

이에 전문가들은 모두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**역대급 세수**를 **잠재성장률**을 **제고**하는 **미래대비 투자**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. 특히, AI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**AI분야 R&D**와 **반도체 인프라**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 또한, **증대된 세수**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 뿐만 아니라, **향후 경기 대응**과 **미래 투자 재원**으로 활용하기 위해 **기금 등 저장·운용방식**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.

또한, 5대 구조적 난제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·양극화 등 **K자 성장 문제**로 **연결되지 않도록** 하는 **정책적 고려**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. AI 혁신으로 인한 **일자리 감소 우려**와 **소득·자산 불평등** 등에 대한 **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**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. 아울러,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**에너지 인프라**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.

마지막으로, 전문가들은 재정 혁신에 대해 **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**을 **구조조정**하여, **핵심 분야**에 **재투자**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 또한, **재정구조 혁신**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, **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**도 **과감하게 개혁**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
이에 박 장관은 오늘 모인 의견을 향후 **'27년도 예산안** 및 **중기 재정운용 계획**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총괄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4-18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원준 (parkwj777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